

주간 충현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2 충현교회

THE WEEKLY CH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주의 만찬” / 청지기 훈련을 마치고

꽃샘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봄의 절정 가까워올수록 노닐 즈음. 그 동안 이모저모도 준비했던 정치기후론의 선진화와 은행가들의 무사히 마쳐졌다. '주의 만년'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번 정치기후론을 마치고서도 진정으로 간사했던 것이 정치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담겨 있는 것을 가늠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차례의 정치기후론을 통해서 선진화되었던 '주의 만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복습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 주에 배울 여러 성장예식이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하는 영적 연합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고전 11:23a)

고린도교회는 주의 만민을 신실하게 행했던 아라비섬 여백을 가지고 있었던 10년 가까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행하여 성인의 성 바티스타 영적인과 의의 가르침을 거듭한 교회에 교화되었던 17년. 그런데 성전에 대한 예복은 고린도교회의 문명인이 아니었. 허망한 신화와 같은 세상의 관습을 초래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전으로 그들의 의의 가르침을 행하여 교회에 존재한다 13-4. 사설이 다른 것들은 성전에 대한 사관 그리스도의 '진정한 질'을 예복과 같이 파괴하여, 더 나은 교회화한 음모였다. 어디 그 뿐만이 가지는 아비는 오늘날에야 미망의 많은 교회들 속으로 침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상에 전한 것으로 바울로, 성전과 주의 성전을 대립하여 무분별하고 있다. 특히 이교도, 성전, 예복이나 예복을 행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아라비

그렇다면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 성전이 자기 자신보다 어떤 사람에게 의해서 세워지는 천사에게 의해 사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직접 제정하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다, 성전은 세상의 그 어떤 예식보다 가장

소중하며 가치 있는 예사이요,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문답이다. 다시 말하지만 성인은 해바라님 신학의 그리스도의 '신학'인 예수를 내로하고, 그리스도께서 창조된 지구의 지가 되실 것을 경배하고, 그와 그리스도아말로 화하는 은혜를 참주는 유일한 한 이성을 내내다. 또한 성인은 지기를 형성시키는 '유물적 이관성'의 성품들 가장 철저하게 변형하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한 영원한 자비이심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해바라님 예사이고 우리의 그리스도 해바라님 되심을 깨닫게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처럼 '신적 고통'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길을 요청한다.

생선은 인간이 조물지키지 못한, 이것은 인간에 의해 사육된 것이 아니라 때때로, 또한 생선에서 우리가 기억할 할 것은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어한 것이다. 그것은 주님께와 '나'를 기념하고 알맞아지므로, 이다. 생각해 보라, 우리는 다른 예식과 행위를 위해서 얼마나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가? 그러나 정작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선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고 대하고 있지 않은가? 때로는 주를 기념보다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그릇됨에 빠져있지는 않은가? 속히 어리석은 자라면서 벗어나 마음을 새롭게 돌이키고 그분의 식탁에 진정으로 참여할 때이다.

(루카 11:6)

떡과 포도주(성찬의 표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
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
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고전 11:23b~25)

가독과 성례인 세례와 성찬에는 각각의 표지가 있다. 세례의 표지는 '물(water)'이고, 성찬의 표지는 '떡과 포도주'이다. 특히 예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찬의 외적 표지인 떡과 포도주는 물질적인 것이며, 믿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징이다. 자칫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사물을 가운데 떡과 포도주를 선택해서 자 자신의 영적고교나 신적인 재료의 생명양식을 삼았었다.

외적인 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의미이다. 세례의 표지인 물이 귀중한 내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성찬의 표지인 떡과 포도주에도 귀중하고 존엄한 내적 의미가 담겨 있다. 성찬 표지인 떡과 포도주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비해서, 그 떡과 포도주는 담겨 있는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보여지는 영적이고 신비한 요소이다. 비록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진, 그 떡과 포도주에 담긴 영적이고 신비한 가치는 사람의 통찰력을 이 세상의 어떤 자으로도 채울 수 없는 놀라운 '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성의(性의) 덕과 도(道)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양치(羊齒)와 산악(山岳) 공생체(共生體)를 보여준다. 한 돌, 한 풀의 국사(國史)이다. 사(史)는 사(史)가 덕(德)이고 도(道) 한 알, 한 풀, 한 돌, 한 가지의 자연(自然)의 생(生)을 만나면 살아나, 해나와 동행(同行) 부처(佛)나 자(子)를 배어 종(宗)의 전통(傳統)을 잇는 그리스도(基督)를 받아야 하는 부처(佛)나 자(子)를 배어 종(宗)의 전통(傳統)을 잇는 자(子)의 생(生)의 속(속)에 초월(超越)된 의미(意味)이다. 그래서 '거룩한 돌'(holy compound)을 의미하는 그리스도(基督)를 배어 종(宗)의 전통(傳統)을 잇는 돌(돌)은 영적(靈的)인 양치(羊齒)가 존재한다. 그리스도(基督)와 도(道)주는 반드시 돌(돌)을 주(主)의 거룩한 공생체(共生體) 한 가지(一)과 고(高)를 넘어가는 돌(돌)이다. 그것은 그리스도(基督)에서 자(子)의 길을 가진 자(子)를 형성(形成)하고 나(我)의 길을 행(行)하는 순자(順子)의 되었음을 의미하고, 우리(我)를 괴롭히는 내(內)의 적(敵)의 죽음(死)과 우리(我)의 적(敵)의 권(權)에 대항하여 함께 싸우는 거룩한 공생체(共生體)가 자(子)를 넘어가는 돌(돌)이다.

호한 떡과 포도는 신자를 강하게 하는 영의 앙양을 의미한다. 그 리고 새끼나 나무아이를 치고 난 후에도 생명의 앙양이 있는 떡과 포도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로 받았으니 생명의 앙양이다. 그러다, 이는 자들이 이 떡과 포도를 주그리고 자신의 떡과 포도를 가지고 있을 만 음으로 반달일지, 새 생명의 앙양이 이 세상과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주신 것이 진정한 생명을 치료하여, 우리를 위하여 축사하시고 기도하신다 주님 의 앙양을 받고 해는 천국이 나타나고, 내내, 그로써 이 세상에서 주신 모든 우산들을 통해 자작으로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 한다. 그 스를 살기 일수록, 그분의 영을 살기 일수록, 그리고 세상의 고통과 불행함 함께 살아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고, 내내 포도나 빵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는 떡과 포도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생명의 앙양이 있는 것을 영접한 자처럼 살아가라. 이것이 '신 생명(living faith)'이다. 그리고 새 생명의 생명의 앙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포도나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가 생명의 속삭임에 비추시는 생명의 앙양을 받 아내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 그를 따라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내가 친영의 로 살아있는 것이다.

초라한 떡과 포도주에 담긴 놀라운 내적인 의미는 초라한 상징자에 담긴 놀라운 내적인 의미를 깨고, 배운이 이론으로 되여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하던 하늘의 은사가 그들 어저께 이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하던 하늘의 은사가 그들 향해 활짝 열릴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재창하신 초라한 성전의 식탁을 세상이나 인간의 것들로 장식하거나 혼합하지 말라. 주께서는 보잘 것 없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기 한다면 하늘의 은사를 넘쳐히 부여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다. 자신을 버리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지불하신 주님의 대속과 구속을 기념하는 것이다.

성신을 통해서 나의 주조심과 감성은 일온 해바라기 창초와 재갈을
를 생가하여 만다. 인간이 하나님과 성신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인공을
이것이 성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조의 주조심은 가장 많은 인공을
만들 뿐 아니라 해바라기 황옥처럼 한창 한창 연을 아껴 하하를 목
하에 한다. 그러므로 성신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성신인 하나님의
안을 가져와서 한다.

성신은 우리로 하여금 성신과 함께 주조신 그리스도를 생애하여 한 것
요하는 것이다. 주조신은 성신과 함께 주조신과 주조신의 생애하여 한
아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러하다. 성신을 받은 것은 나의 자에게 주조
놀리는 특권이다. 따라서 성신을 받은 자들은 주조신 주조신의 생애
전하여 할 인격의 의무를 가진다.

성전의 식탁에서 우리는 세상의 상실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과 그 죄
대속하기 위하여 이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고통을 기억해야 한다.
성을 향한 하나님의 헌약, 자신이 만든 인간을 심판의 불구덩이로 몰아
야 하는 의로운 신 '창조주의 고통'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구
하려고 자기 이들을 죽임 가운데로 내몰이간 '성령의 고통'이 성전의
턱에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성찬의 식탁에 거대한 하나님의 눈물과 심판이 우리에게 구속과 용서로 변화됨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감당하신 실재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았으며, 지금도 주께서 성찬의 식탁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것이다.

Are you ready? (1 Corinthians 11:23-34)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A man ought to examine himself before he eats of the bread and drinks of the cup.

The Lord's Supper is one of the most sacred worship services in the House of God. Every Christian should join at the Lord's Table! It is one of the strongest reminders we have of Christ suffering on the cross. We have to remember His suffering. Today is the second time this year for our church to participate in it. There's a lot of things going on here, at His Table, that you need to keep in mind. You really need to know what you have to do in order to be ready.

The Lord's Supper is called a "coming together". "So then, my brethren, when you come together to eat, wait for one another" (v. 33). What does all together mean? Coming together is a mutual consent, a oneness, a special fellowship. It is a time when we, as a church, dedicate, consecrate, and share in Christ's suffering. Believers get together, not one by one, but as a whole group. Remember, Jesus waited eagerly for all the disciples to come together at one table.

The Lord's Supper is from the Lord.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lso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vv. 23-25). Paul received this revelation from the Lord. He received it and he delivered it! The key words of Jesus are,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The Lord's Supper was not made by the disciples, prophets, or leaders of the church. It was made by the Lord. That's why it is so important. Paul is giving this notice because this admonition comes from the Lord by divine revelation.

The Lord's Supper is a commandment, not a suggestion. It's not Paul's advice. It is an order from the Lord. Jesus was serious about this command. He gave it on the night he was to be betrayed. In His suffering, He was brave and blessed the bread and cup saying,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t's a total commandment. Tell me, how can anyone afford to call themselves His and not obey this

commandment? "Why do you call Me, 'Lord, Lord,' and do not do what I say (Lk. 6:46)? Get the idea? A lot of people call Jesus, 'Lord, Lord', but don't do what He commands. The Lord's Supper is a command for all believers. If you call Him your Lord, then do it.

The Lord's Supper shows the Lord's death. It is a complete commemoration of His death. We meet around His thrown, bearing in mind His suffering and death on the cross. Without His death, we cannot be saved. It is totally through God's love and grace that we find salvation from death and eternal suffering. You have to demonstrate this dedication.

The Lord's Supper is not to be done just once, but periodically,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v. 26). This isn't something you just do once in your life. This is something you do every time we get together. You've got to do it every time. Until Jesus comes, this is something you must do. We are the witnesses of His resurrection, second coming, and total victory. That's why we should continually come to His Table.

The Lord's Supper calls for an examination on the part of each participant. Before you come you need to examine yourself, "But a man must examine himself, and in so doing he is to eat of the bread and drink of the cup. For he who eats and drinks, eats and drinks judgments to himself if he does not judge the body rightly" (vv. 28&29). You've got to be serious as a sinner. Search yourself. Don't come because of tradition. Don't touch His body and blood without solemn thought.

My dear friend, the Lord's Supper is such a blessing. Are you ready to take it? Are you ready to follow His order? Are you ready to recognize His death? Are you ready to practice this serious blessing until His return? Before you come, search your heart. Let us all pray, "Lord Jesus, you are my Master and King. You are pure grace. Thank you Lord. I obey your order. I will participate in this wonderful Lord's Supper, remembering your death and accepting your sacrifice. Amen." 

준비가 되었습니까? (고전 11:23~34)



김성관 목사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을 위한 준비

주의 성찬은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지는 가장 신성한 예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의 식탁에서 연합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을 가장 강력하게 상기시켜주는 것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하신 고난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총현교회가 금년에 두 번째로 실시하는 성찬의 날입니다. 이 거룩한 주의 식탁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로서, 성찬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

주의 성찬은 ‘함께 모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이,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33절). 그러면 함께 모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함께 모이는 것’이라는 뜻은 서로 동의하는 것이요, 하나가 되는 것이며, 특별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의 성찬은 하나의 교회로서, 헌신과 신성함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믿는 자들이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받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한 식탁으로 함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주께서 제정하신 것

주의 성찬은 주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23~25). 바울은 주께로부터 이 제사를 받았습시다. 그는 그것을 받았고 전달했습니다. 예수의 핵심적인 말씀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찬은 제자들이나, 선지자들,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주님에 의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을 행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훈계가 주께로부터 온 신성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

주의 성찬은 일종의 제단이 아니라 단호한 명령입니다. 성찬은 바울의 권면이 아닙니다. 성찬은 주의 명령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성찬을 아주 진지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은 베산당하시던 밤에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난 앞에서도 용감하게 떡과 잔을 들고 축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감히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의 권위로 주의 성찬에 초청할 수 있으며, 또는 이 명령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라,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는나”(눅 6:46).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여, 주여”하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분의 명령은 준행하지 않습니다. 주의 성찬은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분을 구주로 부

르신다면 반드시 성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냄

주의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완전한 기념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께서 자기를 포기하심과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참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죽으심 없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의 헌신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행해야 함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28절). 성찬은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한 번만 행하면 되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때에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시간마다 성찬을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부활과 제함과 완전한 승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의 식탁에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야 함

주의 성찬은 참석자들 각자가 자신을 살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 자신을 살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28절~29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으로서 진지하게 자신을 살피어야 합니다. 단지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예식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몸과 피를 유혹한 생각 없이 만지치 마십시오.

성찬을 위한 준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찬에는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성찬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분의 명령을 따를 준비도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인정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진정된 축복을 실천할 준비도 되었습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성찬의 식탁으로 나아오시기 전, 먼저 마음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주께서는 나의 주인, 영원한 왕이시나이다.
주께서 품으신 순결하신 은혜
진실로 감사드리오니
주의 거룩하신 명령, 순종하게 하소서.
지금,
주께서 배부신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오니
나로 하여금
주의 죽으심 기억하며
주의 거룩하신 희생의 제사
가슴 깊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소서. 아멘”

2002 단기선교 국가소개 ②

몽골

몽골(Mongol)이란 용어는 원래 '유목민'이란 뜻을 지닌 부족명이었으나, 장기시간에 보아 통 일된 몽골 부족의 발전에 따라 민족명(Mongol)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사용된 몽고라는 명칭 은 중국사람들 가진 중국인들이 주변민족을 '몽마'나 '이만'이라고 강요하면서 생겨난 이후 '몽 고'라고 부른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수도 이름은 '불은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정부 형태는 공화 제. 중심의 이슬람교(제2대 민족종교) 성격이 강함이며 독립일은 1921년 7월 11일입니다.(조선 적 공과 선행하며 중국으로부터 독립). 국가 선포일은 1924년 11월 26일입니다.(러시아의 혁명적 개혁, 몽골인민공화국 선포). 국가가 선포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나라에는 불교도가 많이 있습 니다. 1인당 소득은 500달러이며 한 달 평균은 5만 원 정도입니다. 공용어는 캄초 몽골어이며 문 자로는 키릴문자(러시아 문자 차용)를 사용합니다. 국가는 소염보기(旗)이며 직사각형이 3등분 되 어 중앙은 청색, 양쪽은 적색으로 좌측 적색 부분에 황색의 국가 상징인 소염보가 그려져 있습니 다. 소염보는 권의문자이며 몽골의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는 정통문장으로서 1924년 제1회 대만 민선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 고산대지 북쪽에 위치한 내륙 국가(북쪽으로 러시아, 남쪽으 로 중국과 접경하고 있으며, 국경선의 총 길이는 8,622km)이며 면적은 1,567,000km²(한반도의 7.4배)이고 평균고도는 1,500m(최대산의 정상 높이)입니다. 기후는 건성(寒半)이며 인구 는 2381만명(약760만명)이 수도에 거주, 2000.1.5 현재입니다. 인구 밀도가 희박하여 1.52명/km² 이다. 중국은 할호몽골족(79%), 카자흐족(5.9%), 중국계(2%) 등 17개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중국은 불교(90%이상), 이슬람교(5%) 등입니다. 주요 도시는 다라르(Darham, 8만명), 에르데 네(Erdene, 5.4만명), 초이발산(Choibalsam, 2.7만명)입니다.

기 도 제 목

1. 4월부터 있을 단기선교사들에게 복음의 나날이 힘있게 흘러들도록.
2. 언어훈련과 CMTC 강의로 중무장한 심장이 군병들이 성령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도록.
3. 몽골 21개 자치(자치)국의 도에 260만 인구를 자랑하도록.
4. 선악과 사탄과 싸웠던 에덴은 복음들로 가득하도록.

성경이 말하는 인간 ⑥

인간의 죄, 그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신은 죄와는 별 관계없이 살고 있다거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별로 죄를 짓 고 있지 않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정확하 게 비추어주는 거울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5장에서 밤이 마지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할 사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게 되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 5:8)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이다. 이것은 인간 베드로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악된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다. 인간은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의 바 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 이나고 나는 죽었다'(롬 7:9)라고 고백했다. 하나님의 율법에 자신을 비추어보니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 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율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인간의 모든 죄에는 율법에 대한 불순종 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요구하셨다(레 19:2).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의 요구와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인간이 더럽고 추악한 죄는 여의없이 드러 나게 된다. 그러므로 결국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죄는 항상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며, 또한 죄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오임을 동반하게 된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의 심령은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장을 살펴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렐 17:9). 이것은 죄가 단지 인간의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즉 하 나님은 오묘된 마음 속 그 자체를 이미 심판하시며 그 마음으로부터 흘려주는 모든 생각과 마음 역시 이미 죄가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죄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배치되는 인간의 상태와 성향과 행동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리지 않고 순종하면 서 살 수 없는 것일까? 물론 그렇게 살라고 애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한 본성 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 자체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하 나는 곤한 자로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내랴'(롬 7:24)라고 탄식한 것이다.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그 악한 본성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지옥불에 버린단다 해도 인간은 아무런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던 겨져 있지 않고 영생과 소망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죄악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주에 계속) (이성욱 목사)

CMTC 집중반 개강

2월 25일~26일, 오전9시, 제2교육관 4층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실시되는 CMTC 집중교 육반이 2월 25일~26일에 개강합니다.

1. 기 간: 2002년 2월 25일~26일

2. 장 소: 제2교육관 4층

4. 강의와 시간표

3. 등록비: 1만원

	2/25 (월)	2/26 (화)
제1강 (09:00~10:30)	개강예배 오리엔테이션	타문화의 이해 (김동하 목사)
제2강 (10:40~12:10)	선교의 의미와 역사 (차병준 목사)	단기선교의 실제1 (민병용 전도사)
제3강 (13:10~14:40)	탐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은희 전도사)	단기선교의 실제2 (오재국 전도사)
제4강 (14:50~16:20)	비교종교학 (김봉현 전도사)	전도 훈련 (여국근 목사)
제5강 (16:30~18:00)	국내 외국인 사역과 선교 (송길환 목사)	폐회예배
	부흥회(정현민 목사)	

*CMTC수강생 모두는 1박 2일회를 별도 참석해야 합니다.

☪ 선교를 위한 주일 기도회 ☪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유가 나랴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단기선교를 기도로 준비합니다

일시: '매주일' 오후 4:00~4:40

장소: 갈릴리움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저는 이곳 춘천소년원 가위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죄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예수 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 리고 많은 죄를 지으며 내가 어려울 때에만 하나님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경학교에 참석하면서 다시 한 번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믿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하루하루를 앞으로 있을 심리에 대한 불안함과 초조 함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예 수님을 믿고 나니 두려움은 없어지고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후로 지금까지 저에게 조금씩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머리가 나를 짓어와 유 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게 되었고, 나쁜 생각을 하 거나 나쁜 행동을 할 때 왠지 누군가가 나를 보고 내 생각을 읽 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제 주위에 는 정말 달리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그 사람을 내가 진도 할 용기가 없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주 님께 감사기도할 수 있는 제 자신을 만들도록 노력하며 살 겠습니다.

오늘도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저에게 생각을 주시고 손을 주시고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아들 율림

간절한 기대와 소망

방준영 (목사, 신혼가정부 지도)

여러분의 삶에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빌 1:2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 사도의 삶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를 좇아가는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은 우리의 삶에 일부뿐이나 특정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진지...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 하니”. 여기 ‘아무 일에도 진지’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만나며 행하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작고 크고, 중요하고 사소하고, 유명하고 무명하고, 쉽고 힘들고 등등의 차이와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굶주린 배를 채운 무리들이 서로 다투어 예수님께로 모여서 그분을 임금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울로 하여금 모든 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여 있지만, 오히려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더 좋기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만약 삶에 매여있다면, 이런 고백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 가지 매여있고 집착하는 삶의 부분들은 없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만약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진정 원한다면,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열매와 집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길 원하는 사람은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자람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상대방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나로 인하여 상대방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가정과 교회 및 우리가 속한 직장과 이웃에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아내를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남편은 주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베소서 5:22~28

하나님 앞에서

정인옥, 이혜경 부부 (신혼가정부)

명절이 며칠 지난 후, 한 가정의 며느리로서 큰 일을 해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년 명절 때마다 명절 중후순이란 말이 나올 만큼 우리나라 며느리들은 한 말도 많다. 나 역시 명절 한 달 전부터 표 예매로 시작해 연휴 마지막 날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명절 전에 꼭 준비해야 될 가장 큰 한 가지가 시험되지 않기 위한 기도 준비였다. 생활환경이 달라 어려운 시점에서 내 마음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믿는 집안이라도 결코 예외일 수 없었다. 명절날 제일 큰 일은 ‘신앙지킴이’,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하기’였다. 윤 설도 그렇게 보내고 올라와 주일예배를 드렸다.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을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코람데오’였다. ‘코람데오’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시댁 식구들을 객안정을 쓰고 보지는 않나? 날 합리화시켜 힘든 일을 시키는 사람을 싫어하진 않나? 내가 시댁 식구들에 대해 품는 마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당한가? 내 내 감정 속에 휩싸여 하나님을 뒷전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댁 식구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불편하여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 또는 내가 부당하게 대접받는다느니 느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코람데오 정신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다.

나 가정의 남편과 자식, 시댁 식구들 앞에서 망각하고 있던 단어 ‘코람데오’, 결혼하면 가혼으로 삼고 싶었던 단어였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코람데오’가 우리 가정 속에서 아니 내 속에서 살아 불타길 바란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의 모습을 미팅하게 내세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조금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글쓴이/이혜경)

완전한 부부되기

이우희, 홍미경 부부 (신혼가정부)



저희는 2000년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첫수로 2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버려드군요. 3년이라는 긴 연애편지를 거쳐 결혼을 했기에, 그래서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기에, 다른 부부들보다 더 쉽게 부부 생활에 적응하고 원만할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다. 보통 결혼 초에는 양가 부모님과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많이 다투다그들 합니다만 저희 부부는 그 문제로 싸운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성격상의 문제, 혹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연애시절 알고 있던 상대방에 대한 허물들이 결혼 후엔 더욱 크게 보이게 되면서 그런 허물들을 지적하는)로 매번 말다툼을 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지쳐가는 저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화해는 했지만 항상 서로의 잘못을 먼저 따져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면서 다시 같은 일로 싸우지 말라고 다짐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다툼의 뿌리는 제거하지 못하고 내일 또 어떤 일로 다투게 될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큰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다.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단지 대화로, 이성으로 잘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그런 착각에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스스로는 변화하고 하지 않고 상대방이 변하기만 바라며 서로 감싸안으려 하질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결단하고 인간의 사랑하는 감정으로 노력을 해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은 노력과 사랑으로는 결코 해피 엔딩에 도달하지 못하고 언제나 미움과 단지 참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그리고 후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만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할 때 모든 갈등이 기뻐질 것 같아워진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머리만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할 때, 진정으로 서로를 감싸주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 무엇인가 점철한 결혼이 아닌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늬만 부부가 아니라 알맹이도 완전한 부부라고...

(글쓴이/홍미경)

[한국 교회사]

초기의 선교활동(1)

교육선교

선교사들이 남긴 업적 중에 또 한 가지는 교육사업이었다. 교육사업 또한 전도를 위한 방법이었지만 한국의 근대교육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 선교 초기, 한국인들을 다수가 문맹자였고 기본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교육은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였다. 게일(Gale)의 말대로 "복음의 전수를 위한 준비 단계로서 교육은 필요"하였다.

한국에서의 근대교육은 1886년 아펜젤러가 배재학당을, 스코틀랜드 이화학당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한국 근대교육의 효시인 배재학당은 학교 문을 열자마자 학생들이 몰려들어 불과 5개월만에 학생 수가 32명에 이르렀다. 이처럼 학생들이 늘어난 것은 종교적 관심 때문이 아니었다. 영어를 배워 출세하려는 현실적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적 욕구를 갖고 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운데 성경을 읽거나 선교사들의 예배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생기기 되었으니 1887년 7월 24일 예배에 세례받은 박종상과 같은 형제 10월 2일에 세례받은 한용운이 그 대표적인 예였다. 또 언더우드는 1886년 고아원형식의 학교를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후에 경신 학교가 되었고 1887년에는 엘리스(Miss Annie Ellers)양이 정신학교를 설립한 이래 많은 학교가 설립되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도 선교부가, 혹은 지역 교인들과 함으로 설립한 기독교 학교들이 계속 늘어났다. 선교부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학교는 초기 교과목에서 한문·역사·지리·수학·과학 등 일반 과목에 많은 비중을 두었고, 예외없이 성경과목을 포함시켜 기독교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고자 했다. 궁극적으로 학교는 '한국을 복음화시키는' 도구였다.

그러나 기독교가 민족의 종교가 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마지막 관문이 있었다. 식자층의 기독교관은 아직도 부정적인 것이었다. 민중계층이나 병원이자 학교를 통한 선교 활동은 은혜의 행위로 받아들였고 그만큼 기독교에 대해 개방적인 분위기가 없었으나 식자계층과 지배계층에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펼치는 의료·교육사업으로 인해 종래 기독교에 대해 갖고 있던 그릇된 선입관이 많이 해소되었고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도 상당히 사라지게 된 것만은 사실이다. 결국 교육사업은 의사사업과 더불어 복음전파의 중요한 방편이었다.

구역확립

돌아보게 하는 것들

9교구 중계 1구역

구역장 : 오광순 집사

중계 1구역에는 유난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았다. 그리고 구역원들이 오랜 시간 구역에 몸담고 있어서인지 구역에 대한 애착이 깊다. 가족 모임

을 미루고 오는 구역원도 있었고 결혼식 등의 날조차 가능하면 금요일은 피해서 잡는다고 했다. '충현의 만년'에 찬송 해설을 첨가한 후로 처음 탐방한 구역이었는데 찬송 해설을 적절히 활용해 은혜로웠다.

구역원들의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잘 때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리는 오직 주만 보고 있는가? 주만께서 따르라고 하시는데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오셨다고 말한 사람과 같지는 않은가? 한 성도는 자기도 그와 같은 상상이 판다며 아버지의 장사를 지냈을 것이라고 부끄러워하며 고백했다. 다른 성도들도 열의 아홉은 그럴 것이라며 반성하고 고백했다. 또 한 성도는 구제를 온사로 생각하고 '돈을 조금 더 벌면 구제를 사작해야지'라고 세상과 연관지어 생각했는데 개산이 늘면 늘수록 '종다'라는 생각으로 구제를 미루게 되었고 고백하고는 고백했다. 구역원들의 회개와 나눔은 진지하고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울고 그들을 아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면 자꾸 분별력이 없어지면서 배운 말씀이 항상 머리 속에 남아 있도록 뿌리 깊이 말씀을 받아 놓아주고 권유하는 성도도 있었다.

각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뒤를 돌아보게 하는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였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주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 궁극적으로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인데, 자꾸 공부를 강요하게 되고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만을 가르치게 된다는 고백이었다. 이것은 모두가 공감하며 부끄러워하는 고백이었다.

중계 1구역 성도들은 숨김없이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들을 고백했다. 이런 솔직한 회개와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의 증표이며 변화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끝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돕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 온전히 가기 위해 성령님께 매달려야 한다고 서로에게 권했다.

(권오섭 기자)

양요일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청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비하신 성령을 주사 나를 복되소서 (시편 51:10, 12)

5교구 한장자(여62세) 열소관 갑소중(미가 마르는 병)이 호전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지치지 않을 것과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최수영(57세) 암 제거 제수술 후 자가 치료 중입니다. 건강이 회복되어 신앙생활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0교구 박복옥 집사(68세) 간경화로 악물 치료 중입니다. 간암으로 전이되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2교구 윤여원(남60세)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독했으나 수술 후 빠르게 회복되어 곧 퇴원합니다. 감사하듯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순자 권사(여61세) 25일 폐암 수술 예정입니다. 수술이 잘 되고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김상혜(여80세)이성심 검사 모친. 교통사고로 척추, 뇌신경을 다쳐 지난 19일 수술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가족 모두 기도 중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분희 성도(여83세)다발결핵과 간경화로 중년 중입니다. 믿음으로 고통을 이겨 내기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나라 민족 영성이 본주함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그 시기 동안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어느 곳에 개역하셨는지? 하나님을 영합 하려 하고 마음을 다스린 새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 본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새가족부 간증

한 걸음, 두 걸음



진 터전에서 이제는 빠져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무 것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보낸 시점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 하고 살았습니까.

그러던 중 강남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웬일인지 시골에서도 자주 눈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무리 주위를 살펴봐도 없었습니다. 무작정 걸으면 나오겠지 하고 간단히 발견이 멀은 곳은 고통스럽고 우아한 건물양식의 총현 교회였습니다. 익히 들어오던 교회를 보며 숨이 턱차 오름을 느꼈습니다.

새가족부에 등록을 하고 보니 교육체계가 좋았고, 따로 성경을 배운 적이 없었던 터라 참 감사했습니다. 처음 이끌어 주신 담임 신장님 또한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우셔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남편과 딸들도 예전 같으면 교회 가자면 억장부러리나 이제는 즐겁게 옵니다. 모든 것들이 새로이 알게 하고 나를 베풀어 마지의 세계를 동경하듯,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느끼면서 성장해 갈 것을 확신합니다. 이 사랑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남은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남은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바꾸어 주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복희 성도 - 새가족부)

다움주일 찬송

283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영국 교회의 에드워드 헨리 비커스태프(Edward Henry Bickersteth, 1825~1906)주교가 1872년에 쓴 성찬 찬송가. 주께 감사해 부각시키며 사적 복원이 아름답고 리듬이 순수해 성찬의 감정을 준다. 그의 삶과 믿음 그리고 마시므로써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상에 걸맞은 나미지 말리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다. 성찬의 근본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신 예수님의 생명을 영접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며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 구약 사약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다(고전 11:26). 그렇다면 성찬식에서 평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자아 지은 죄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성찬 여사에 참여해야 한다. 주님의 대속의 죽음은 비로 자신을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는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다.

- 1절 비록 주의 성찬에 참여하여도 죄인된 몸으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을을 고백하고 있다. 그 때 주님의 공로와 함께 한행하며 주의 간직에 있어 먹으라고 성찬을 나누는 간구이다.
- 2절 주께 감사해 가미 갈 수 없는 죄인이나 주께 감사해 갈 수 있는 최선의 열심한 간구할 때를 이루는 것이다.
- 3절 한 번만 주님의 몸씀 돌아도 머리의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 4절 실컷 한행하면 죄인이 되 보나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죄를 대속하셨다. 온 성도들은 한행하며 주의 간직에 있어 먹으라고 성찬을 나누는 간구이다.
- 5절 주의 피와 잔을 받으신 마음으로 돌아오신 영원히 함께 하고 마시는 것이다.

새째만 전례를 크리스찬전점크게하여 셋째때에서 강조한 후 디모데후(도전점)에게한대, 주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여 말리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부른다. (현영희회)

예수님, 함께 해 주세요!

조 성수 (에바다부 교사)



올해는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이다. 이름뿐이었던 오랜 교회생활 중에 처음으로 주님께 봉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지 그 동안 주님께서 항상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별미만 한 것이 아닌가? 더 늦기 전에, 아직 기운이 있을 때에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하는' 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에바다부에서 보조교사를 시작했다. '나같은 사람이 해도 될까? 잘 할 수 있을까? 망설임과 두려움도 많았다. 생각할수록 나의 흠과 모자란 점이 떠올랐고, 준비가 덜 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나? 나의 생활은 어땠나? 나의 말과 행동은?' 등등, 정말 채우고 고쳐야 할 점이 너무나 많았다. 그때, 봉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주님 주님의 도구로 내놓으면 주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주시면서 주님 뜻에 합당하게 써주신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고백한 열심과 사랑과 감사뿐이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준비가 덜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직은, 아직은' 하다 결국은 못하게 되었었고.

이렇게 에바다부에서의 생활은 시작되었다. 지금도 매일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봉사를 통해 주님의 새로운 사랑과 가르침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내가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부족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가지고 양육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된 것이다. 봉사를 통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부분, 없었던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열심히 하라'가야지' 다짐하면서 주님께 기도한다.

'혹시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해주세요, 지치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세요.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며 주님께 매달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의 감사와 열심이 쇠나 다 변질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커지도록 주님이 믿음을 키워주세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봉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영적인 지도자의 사명

박 경배 (외전부 교사)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직분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그것을 보고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훈련시키는 사명을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즉,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살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 목사님이 '세상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목수에게 고장난 시계를 고쳐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에는 이와 같은 일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는 말씀 아닌 사람중심의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중심의 신앙공동체 속에 살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은 다릅니다. 철저히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사람이 대신할 여유가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대신한다 해도 성도들이 대변에 알아차릴 정도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진포되는 말씀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씀에 충실합니다. 우리는 이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듯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영예유만큼 유혹적인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여러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서로서로 조화를 이루고, 세상 사는데 힘을 주는 이야기로 존경을 받고 싶어합니다. 이런 유혹을 떨쳐버리려면 기쁜 마음으로, 부처도 모든 유혹은 벗었지만, 존경받고 싶어하는 유혹만큼은 버릴 수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자신을 죽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시 오실 그분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요 3:30)하는 자세가 십자가의 길인 것 같습니다.



Catechism

23. 성례와 세례에 관하여

(1) 성례의 의의와 효력

성례는 하나님께 직접 제정해 주신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그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과실을 견고하게 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을 통령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영속하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모든 성례에는 표와 그 뜻하는 것 사이에 영적 관계 혹은 성례적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례(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피)와 영성이 그 표(성찬의 떡과 포도주)로 표명됩니다. 성례의 효력은 그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례의 역사와, 그리스도께서 성례를 제정하신 말씀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성례를 행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성례를 영접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유익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에는 오직 두 가지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이 두 성례는 아무나 배울지 못하고 반드시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에게 의해 집행되어야 합니다.

(2) 세례의 의의와 효력

세례는 예수께서 제정하신 성례의 성례입니다. 그것은 유령 교회(보이는 교회)에 영속하게 가입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정결함을 받고 중생과 사회와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은혜 언약의 인장을 의미합니다. 이 성례는 세례성관행에서 교회 안에서 집행될 것입니다. 성례에서 사용되는 의식 요소는 물입니다.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가 이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세례 받은 사람을 믿는 물 속에 잠기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세례 받은 사람의 머리 위에 물을 붓든지 부려서 베풀는 것이 합당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순종할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무모가 다 믿지 않으면 믿는 성도와 유아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중생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모두 중생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세례와 구원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집행되는 시간에만 발생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 세례를 바르게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약속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임할 때에 언약의 차이 없이 이루어지며 이어져 한결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능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례는 누구에게나 당 한 번만 베풀어야 합니다.

(김정환 전도사·한신1부 부지도)

심리의 생

하박국 (Habakkuk)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2)

하박국을 읽으실 때, 각 장별로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는 1장에서는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나타나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선지자의 기도와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박국서에 나타난 두 가지 질문의 의미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묵상한다면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선지자의 이러한 질문은 인간이 타락한 상태로 모든 사물에 의지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73편'을 함께 읽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2장 4절 하반절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But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하박국서를 이해하는 실마리이며, 신약성경 전체에서 인용되어서 기독교의 중요한 영적 진리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이 하박국서와 신약성경에서 각각 어떠한 의미로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해당 구절은 로마서 1:17, 갈라디아서 3:11, 그리고 히브리서 10:38입니다).

오랫동안 선지자들에게 의해 책망 받아왔던 유다, 민족은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앞에 놓고 미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선지자의 의한 민족과 영장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다시하시는 하나님께 위대한 신조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총제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1:2). 하나님은 정직한 질문에 대해 책망하지 않았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에게 불어닥치는 심판과 멸망의 이름 속에서(3:3-15) 하나님을 향한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3:2, 17-19). 빛나는 영적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노래하게 된 하박국이 여러분들과 그 같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의와 인량의 위대함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마 5:6).

김동욱 목사(한곡교회)

